

경기 '청년연금', 4개월만에 끝?

(남경필 前지사 정책)

이재명 경기지사 부정적 견해 밝혀
2차 지원대상 발표는 무기한 연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던 경기도의 '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 선정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청년 지원 사업이 시행 4개월여 만에 결국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1차로 청년연금 지원대상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 4천여명,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6000여명을 선발했다.

이어 이어 5월 2차로 청년연금 지원대상 3000명, 청년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 8081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 희망자를 모집했다.

도는 당초 서류 심사 등을 거쳐 2차 지원대상 최종 선정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류 심사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청년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하겠다고 수정 공지했다.

반면, 청년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 통보'라고만 재공지,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10년간 일할 경우, 도 지원금을 포함해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이 지사는 지방선거 전부터 '청년연금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로또',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수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지사직 인수위원회 관계자

는 최근 "당선인(이 지사)이 청년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고, 마이스터통장이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청년연금을 계속할지는 취임 이후 도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청년연금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위로부터 어떤 방침도 받은 것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청년연금 지원 신청자들이 선정 결과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지속 시행 여부 등을 최대한 서둘러 결정해 알려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고성철 기자 ksc@metroseoul.co.kr

허례허식보다 민생... 취임식 취소한 당선자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임기 첫 날인 1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태풍 '쁘라삐룬'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했다. /뉴스1

전남도지사·전남자치단체장 집중호우 피해현장 점검·태풍 대비 나서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하면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 자치단체장들이 2일 민선7기 취임식 행사를 취소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먼저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정약용실에서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한 뒤 곧장 재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지사는 태풍에 따른 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한데 이어 오후에는 도내 곳곳의 상습 피해지역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임기 첫 날인 1일 오전 도청 간부들과 현충탑과 김대중 동상을 참배하고, '제7호 태풍 뿌라삐룬 대비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에는 보성 모원 저수지 제방 붕괴 현장 등 집중

호우 피해 현장을 돌아봤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도 외빈 초청 없이 취임 선서와 재난안전대책회의로 취임식을 대체했다.

전남 지역에서 김중식 목포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김산 무안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김철우 보성군수가 취임식 대신 태풍 대비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이동진 진도군수는 "북상 중인 태풍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취임식보다는 군민들의 안전과 재난 대비에 집중해야 한다"며 "태풍 피해 최소화에 전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하세요”

고양시, 폐기물 배출 개선사업 추진
단독주택·소형음식점에 무상 배부

고양시는 관내 일산동구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은 전용배출용기를 사용한 배출·수거 방식으로 사업의 조기정착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최초 1회 한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주민들에게 무상 배부한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백석1동, 마두1동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식사동, 풍산동, 중산동, 정발산동 등 일산동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도로변에 120리터 전용용기를 거점 배치해 수거∙처리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증가 및 무단투기, 특히 쓰레기



고양시는 관내 일산동구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을 추진 한다. /고양시

배출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근본적인 개선방법을 검토해 지난해 일산동구 백석2동 및 중산동 일부지역에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약 30%가 감소됐으며 무단투기 및 민원 발생 감소 등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돼 확대 시행키로 했다.

/경기 고양=김승열 기자 kimsy@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배부한 개별용기에 종량제봉투를 담아 배출하거나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해 고리형으로 부착한 후 내 집 앞에 배출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최초 1회에 한해 무상으로 배부되는 배출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개별부담 해야 한다.

“여름철, 잔류농약 많아” 정밀검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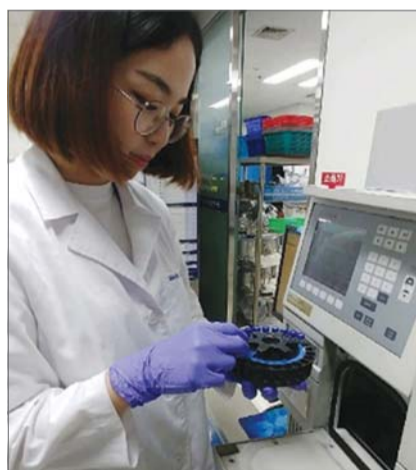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률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 대상은 지난해 여름철 높은 부적합률을 보였던 썩갯, 고춧잎, 깻잎, 얼갈이, 참나물, 상추 등 20종이며, 다이아지는 등 263종의 농약성분을 검사하게 된다. 썩갯의 경우 지난해 7월~9월 사이 13건이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잔류농약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모두 130건으로 이 가운데 57%에 달하는 74건이 여름철인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했다. 연구원은 장마와 기온 상승으로 농가의 농약사용량이 많아지는 것을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압류·폐기해 신속히 유통을 차단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김승열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 /경기도

광주고용노동청 '청년노동자 체불' 업체 대표 구속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청년노동자 47명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약 1억 5000만원을 체불한 H사 대표 이모(33)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된 이씨는 공범 서모(여·28)씨와 공동으로 경기 성남에 H사라는 용역 회사를 만든 뒤 광주와 울산, 인천 등 전국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유명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허위 구인 광고를 게시했다.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들을 전남 무안

등 전국 각지에서 양파작업, 택배하청, 조선업하청업체 등에서 일을 시킨 뒤 업체로부터 받은 도급비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이씨 등은 고급 외제 승용차 등 호화 생활을 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자 잠적했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검거반을 구성해 전주, 대전 등 주요 출몰지를 탐문 수색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혈세, 제대로 쓰이길” 취임사 서면 공개

장마와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으로 취임식을 취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2일 취임사를 서면으로 공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께 드리는 약속'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지사는 군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민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리인"이라며 "역을 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열고있는 평화의 시대, 번영하는 나라를 지방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경기도를 남북 간 교류 협력, 나아가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복지를 확대해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며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없애고 도민의 혈세가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특색 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 겸청하고 소통하는 도지사, 강자의 황포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도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며 함께 사는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수원=고성철 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 김순호 구례군수는 2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태풍에 대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순호 군수는 "갑작스러운 취임식 취소로 군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군수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가(가운데)가 태풍 피해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전남 구례=오인석 기자 gunguck@